

# SKT, 영업익 4000억... '통신·ICT' 날개로 3분기도 순항



매출 4.9조, 순익 7365억 기록  
5G 등 무선통신 사업 매출 3조  
구독·메타버스 서비스 성장세

IPTV 가입자 11.5만명 확보  
올 누적 가입자 순증 1위 달성

SK텔레콤은 무선통신(MNO)과 뉴 ICT(정보통신기술) 등 사업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3분기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SK텔레콤은 10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1년 3분기 매출이 4조 9675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 성장했으며, 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736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5G 누적고객 865만명, 구독·메타버스 사업 순항

우선, MNO 사업은 5G를 포함한 이동통신 사업 리더십을 견고히 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3조 274억원

〈SKT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분	2021.3분기	2020.3분기	YoY	2021년 분기	QoQ
매출	49,675	47,314	5.0%	48,183	3.1%
영업이익	4,000	3,580	11.7%	3,966	0.9%
순이익	7,365	,3918	88.0%	7,957	△7.4%

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1.9% 증가한 3196억원을 기록했다.

5G 가입자도 9월 말 기준으로 865만명으로 6월 말인 전 분기 대비 95만명이 증가했다.

새롭게 출시한 구독 서비스 'T우주'와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를 통해 새 고객 경험을 선사하는 한편,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사업 중심 인프라 서비스를 확장해가고 있다.

7월 출시한 '이프랜드'는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게임·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8월 선보인 구독 서비스 'T우주'는 ▲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을 지속 추가해 혜택 범위를 넓히고 ▲구독 상품에 특화된 유통망 확대 ▲글로벌 스토어 상품 및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구독형 서비스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클라우드 사업은 5G MEC(모바일에 지컴퓨팅) 및 전용회선 인프라 등 AI·DT 기반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톱 수준의 클라우드 사업자를 지향하고,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인더스트리얼 IoT(사물인터넷) 사업도 확대하는 등 새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New ICT 성장 지속... SKB 최대 분기 매출 기록

뉴 ICT 매출은 미디어 사업과 S&C 사업(융합보안)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조 630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32.8%에 달했다.

미디어 사업은 IPTV 가입자 순증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1% 증가한 1조 24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분기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21.3% 늘어난 786억원을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는 3분기 11만 5000명

의 IPTV 가입자를 확보해 총 891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올해 1~3분기 누적 가입자 순증 1위를 달성했다.

웨이브는 '원더우먼', '검은태양'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였고, HBO 단독 콘텐츠 수급 등 효과에 힘입어 지난 9월 역대 최고 월간실사용자(MAU) 443만을 기록했다.

S&C 사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4%, 11.8% 성장한 3970억원, 377억원으로 집계됐다. S&C 사업은 지난달 ADT캡스의 사명을 'SK실더스'로 변경했다. SK실더스는 2025년까지 사이버보안과 신사업 매출 비중을 6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커머스 사업은 배송 서비스 차별화 등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한 매출 2095억원을 기록했다.

11분기는 '아마존 글로벌스토어' 서비스를 개시하고, 구독상품 'T우주'를 통해 해외 직구 상품을 무료로 배송하는 등 혁신 서비스를 선보였다.

SK스토어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15.5% 매출 성장을 지속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안심대리, 플러스 멤버십, 픽업서비스 등을 출시하며 성

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또한, 우티(UT)는 11월 티맵택시 앱을 글로벌 우버앱과 통합해 택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SK텔레콤·SK스퀘어 성공적 분할 완료... 새 도약 기대

SKT는 11월 1일 새 도약을 위한 인적분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AI&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회사인 SK텔레콤, 반도체·ICT 투자전문회사 SK스퀘어로 새롭게 출범했다.

SKT는 2020년 15조원 수준의 연간 매출을 2025년 22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유무선 통신·AI 서비스·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분야의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SK스퀘어는 반도체,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을 기반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ICT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현재 26조원인 순자산가치를 2025년 약 3배에 달하는 75조원으로 키운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SKT 김진원 CFO는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성공적 인적분할을 통해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견고한 시장 리더십과 혁신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고객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삼성전자, 21개 스타트업 성장스토리 공유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  
협력 모색, 투자유치 기회 제공

삼성전자가 올해에도 새로운 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잡을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C랩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성과를 알리고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C랩은 삼성전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현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들기 위해 진행중인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다. 2012년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C랩 인사이트를 처음 도입했고, 2018년부터 외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C랩 아웃사이드로 확대 운영 중이다. 2018년부터 5년간 외부 스타트업 300개, 사내 벤처 과제 200개 지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404개, 내년에 500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C랩 스타트업 데모데에서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 개발로 환경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 '씨워드' 이희재 대표가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개를 배출할 예정이다.

C랩 아웃사이드는 최대 1억원 사업 지원금과 서울 R&D 캠퍼스에 전용 업무공간 및 전 직원 식사 제공,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는 육성 완료 시점에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 등에 그들

안 성과를 알리고 사업 협력 모색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올해에는 ▲지난 1년간 삼성전자가 직접 육성한 18개의 스타트업 ▲삼성전자와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육성한 2개의 우수 스타트업 ▲삼성전자 사내벤처에서 독립해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총 21개가 참여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코오롱인더, 폐지로 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美 오리진과 협력 계약 체결  
탄소배출 50% 이상 감축 기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성능을 가진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인더는 최근 미국 오리진머티리얼스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리진머티리얼스는 폐목재나 폐지 등 버려지는 천연 물질을 화학원료로 만드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인더는 고분자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 역량을 결합해 석유화학 기반 페트보다 높은 수준의 물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친환경 플라스틱은 물성이 낮아 기존 페트를 대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코오롱인더는 탄소배출량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하면서 플라스틱 시장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산 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되며, 필름과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여러 분야로 사용처를 확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 아시아나항공, 수출 중소기업 지원 팔 걷는다

무역협회와 항공운송 지원 맞손  
화물전용 여객기 3차례 편성

아시아나항공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협력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은 11월 10일 오전 11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코로나19 후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시아나항공 김광석 부사장, 한국무역협회 신승관 전무이사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늘 체결한 업무 협약은 화물 성수기 동안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른 최초의 화물 전용 여객기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오는 11월 23일 운항할 예정이다. 그리고 12월에는 7일과 21일, 2회를 운항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과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을 위한 전세기 공급 ▲항공운송·수출입 업계의 상생 방안 마련 ▲중소기업 물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수출입 물류 동향과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공유해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리고 베트남 소재 한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화물 운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SK실트론, 美 웨이퍼 증산에 5년간 7000억 투자

SiC 웨이퍼 중요성 강조  
美 '반도체 지원법' 기대

SK가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동참 뜻을 내비쳤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실트론 미국 자회사인 SK실트론CSS는 미국 상무부에 서한을 통해 5년간 6억달러(한화 약 7000억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

다.

SK실트론CSS는 2019년 SK실트론이 미국 듀폰의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설립했다.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웨이퍼를 주력으로 한다.

이번 서한은 최근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공급망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전달됐다.

앞서최태원 SK 회장이 이달 초 미국에서 60조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SK실트론은 미국 지원도 기대했다. SiC 웨이퍼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급 우려가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지원법' 적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